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으로 여는 민수기-

민수기 21:4-9, 요한복음 3:14-15

정 윤 돈 목사님

* 민21:4-9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 요3:14-15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하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절대불가능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모든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션,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주일이고,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가정이고 후대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지겹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광야같은 삶이 많다. 심방을 하면서 성도들의 인생이야기를 듣다보면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대신 살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저는 제3자가 볼 때는 문제 많은 삶이었으나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계획과 뜻이 있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제가 중증장애인과 10년 넘게 살았는데, 시설을 이용하던 중증장애인이 사망하면 시설은 발각 뒤집어진다. 이용인이 죽으면 이용인을 돌봤던 선생님은 보통 사표를 쓰고 자책감에 더 힘들어한다. 그런데 의외로 장애인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힘들어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즐거워한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광야였다. 자녀가 힘들고 어렵게 집을 떠나 복지시설에서 지냈던 게 부모에게는 마음의 짐이었던 것이다. 그러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니까 오히려 그 고민이 사라졌던 것이다. 나중에 제가 뽀빠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선생님들에게 미안하고 빚진 마음이었다고 하시더

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광야생활임을 느꼈다. 또 어떤 부모는 3살, 4살 된 자녀에게 장애가 발견되자 온갖 병원에 다니면서 재산 다 날리고 빚지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염없이 우시더라. 진짜 광야생활이다. 제가 고아들과 지내면서 꿈과 비전을 물어보는데 한 아이의 기도제목이 자신의 생일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가슴이 아왔다. 한 번도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기도제목이었다. 자신의 진짜 생일을 모른다.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다 그렇다. 심방하며 뵈 분은 몇 십 년 동안 늦게까지 일을 하시면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드리러 오신다. 감사하면서도 잔하다. 제가 진짜 열두 제자, 열두 현장을 24하는 제자를 찾고 있는데 이 분들이 그 제자시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언제 손님이 올지, 매출이 얼마일지도 모른다. 단지 24다. 빚을 지고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유지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광야의 삶일까. 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마약, 도박 중독자를 만나보니까 이분들의 삶은 더 하다. 수없이 자살시도를 했고 정말 마귀가 역사하고 가정은 깨지고 희망과 길이 없다. 사지는 멸절한테 환경은 다 깨져있고 너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중독과 계속 싸워야 한다. 요즘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후대들이 더 쉽게 마약을 접한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망하고 고통스러운 길로 간다. 제가 전과 30범, 40범 중독자분들을 만나 상담하는데, 소설로도 쓸 수 없는 광야생활이다. 성인들은 성인대로 어렵고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힘들다. 다들 본인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한다. 정말 복음으로 이해하고 치유하지 않으면 전부 나의 입장만 생각한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생명을 살리고 도와주지 못한 채 그냥 방치할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셨다. 민수기를 통해 많은 교훈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로 말미암아 원망했다고 했다. 40년 동안 사막을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며 성막을 만들었다가 헐고, 바람은 불고, 춥고,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광야에서도 좋은 길이 있는데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다. 심지어 모세도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게 위로가 되더라.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제자들을 기껏 양육하고 훈련하면 다 서울로 가더라. 서울로 간 제자들 수만 세어 봐도 300명이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했고, 바울도 부흥하기 보다는 평생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살았다. 우리는 받은 복과 나의 사명을 생각해야 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지만 오히려 광야를 누리고 광야에서 승리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은혜를 받고 미래와 언약이 확실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 저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과부와 고아를 위해 빚져가면서 사는 삶 속에서도 행복해 하는 것을 봤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선교하라고 만드셨지, 단지 먹고 살라고 만드시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열 명이 불신앙했다. 40일간 정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큰 성을 보고 사람의 덩치를 보고 때무기와 같더라 불신앙했다. 하나님은 40일 정탐한 후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셨다. 불신앙을 했던 열 명은 징계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성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후대들에게 언약잡고 승리하도록 가르쳤다고 생각한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문제가 생기고 먹는 것과 입는 것, 광야 길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불신앙하고 영적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했음을 알려주고 그렇지 않도록 훈련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분도 속지 않고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땅끝과 세계복음화, 오직 목숨을 다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시길 바란다. 선교사님들은 생을 걸고 선교지에서 산다. 날마다 어렵고 돈이 없고 조건이 어렵고 환경도 어려운데 갈등도 없고 행복하시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교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선교지의 모든 제자들은 사실 다 도와줘야 할 사람이고 부흥한만큼 힘들다. 제3세계에서 50명이 오면 50명을 도

와줘야 하고 500명이 오면 500명을 도와줘야 한다. 그렇다고 선교를 안 할 수 없다. 응답받아서 선교현장을 돕고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사무엘에게 교회 문제, 여호수아 갈렙에게 광야문제가 있었지만 다 뛰어넘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승리한 것처럼 언약을 따라 광야를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목숨 건 열두 제자와 이십사 장로와 70 현장에 땅대를 세우는 70인 제자, 목숨을 걸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주님의 부활을 목숨 걸고 전했던 500형제, 이 사람들이 증인되자 3천, 5천 제자가 일어났다. 이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모델이 되어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일하고 직장생활을 해라.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을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밤까지 일하고 다음 날 또 출근한다. 광야다. 가장은 그런 책임을 가지고 가정을 지킨다. 피, 땀, 눈물을 흘린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축복의 길, 응답의 길, 정복의 길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했다. 말씀을 붙잡고 결혼도 하셔야 한다. 광야라고 생각하니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시작도 못 하는데, 두렵다면 꺾어야 할 흑암이다. 광야를 회피하지 마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 힘을 얻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전도와 선교의 방향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2018년 하버드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31%가 우울과 불안증세로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는 조사가 있다. 일반 대학 졸업생 평균치와 비교해서 우울증과 불안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6배 높다. 왜 그럴까? 머리가 똑똑하니가 생각이 많아서 힘들어한다. 똑똑해도 그것 때문에 광야다. 지혜가 없고 공부를 못하면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광야다. 여러분의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바란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진다. 문제의 이유는 딱 한 가지다. 하나님을 떠나 언약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복음과 말씀이 내게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마라. 말씀이 없고 생명 건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이 오고 걱정이 오고 받을 응답도 오지 않는다. 사지가 멀쩡한데 의욕을 상실하면 아무 것도 못 하듯이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말씀이고 언약과 기도다. 광야같이 생각하도록 하는 마음상태는 답답함, 외로움, 불안함, 괴로움 등이다. 내가 건설현장에서 지교회하는 데 어떤 분께서 팬시리 눈물이 난다고 하시더라.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카지노에서 도박하면서 빚을 남기고,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재혼했지만 불안하다. 괜히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매일 울어도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또 '왜 나만 이럴까', '포기하고 싶다', '지친다', '버림받은 것 같다', '하나님도 나를 잊은 것 같다', '다 끝내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러다가 자살한다. 복음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 생명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돕고 위로해도 듣고 싶지 않아한다. 영적으로 힘들면 위로와 관심도 다 스트레스고 부담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해야 한다. 친히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한다. 저희 어머니가 합숙에 가서는 복음서적을 팔고 있는 중학교 친구를 만났다고 했다. 친구는 남편을 여의고 아들을 소중하게 키웠는데 아들이 연애하고 결혼하더니 변한 게 섭섭해서 우울증에 빠졌었다. 그리고 전도팀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나와서는 복음서적까지 팔게 되었다. 현장에는 이런 사람이 많다. 광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1. 민수기에 기록된 주요한 사건들과 그 의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되어 있다.

(1)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과 제사와 율법을 받는다. 어떻게 예배하고 신앙생활할지 배운다.

(2)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정탐꾼을 보내고 38년 동안 그 주변에서 뱅뱅이를 돈다. 38년 동안 고생했다면 성경에 10장이나 20장은 기록되어야 하는데, 38년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에 단 두세 장 밖에 나오지 않는다. 38년 동안 텐트치고 자고 일어나

고 만나 견고 먹는 의미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간들은 절기를 연습하는 시간이었다. 예배를 드리고 십계명과 절기를 지키고 제사제도를 정립하고 성막중심으로 움직이는 영적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다. 이런 준비가 없었다면 언약 백성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도 똑같은 공예배들이 반복적인 것 같지만 그러한 동안 영적으로 새롭게 성민으로 만들어져 가는 언약의 여정이다.

(3)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의 중요한 지점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발람과 발락의 저주, 음란한 사건, 모세의 실수, 원망과 불평하는 사건들이 생긴다. 마지막 응답 받기 전에 속지 않으시기 바란다.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후대만 가나안에 들어갔다. 응답 앞에서 속지 마시고 땅을 정복하시기 바란다. 민수기 26장에서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지내며 2백 만, 3백 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40년 지냈는데 오히려 인구가 줄었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다. 많은 재앙과 문제, 전쟁과 기근이 있었다는 말이다. 당시에는 인구가 느는 게 재산이자 노동력이자 축복인데 따지고 보면 40년 동안 하나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40년 신앙생활했는데 오히려 인구가 줄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응답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들은 우리 교회와 후대와 나라와 민족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2. 하나님께서 광야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영적인 메시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광야생활은 세상만 좋아해서 니중심, 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 미귀에게 끌려다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으로, 또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정이었다. 그래서 광야훈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 훈련과정이다. 광야훈련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 훈련과정이다. 광야에서 넘어지면 고생만 하고 축복을 못 받고 끝나버린다. 저는 옛날에 '제가 넘어지더라도 후대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더라. 나의 세대, 당대에 복을 달라고, 백세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꿨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100세, 120세까지 복음을 전하고 응답받으시기 바란다.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야 한다.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자신이 40년 전과 같다고 말했다.

(2) 그 결과 광야생활과 훈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노예체질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변화되었다. 율법체질에서 완전복음의 체질로 변화되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의 후대로 변화되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원망하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오직 모세에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제자로 변화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땀에 물리니까 땀땀을 매달아 보도록 했다. 왜 땀이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우리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을 때 눈을 감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했다. 죽으셔야만 했다. 그래서 땀땀이다. 여러분은 사람을 치유하는 십자가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생명나무, 생명과일, 살리는 과일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 땅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다. 여러분이 모두 그 언약의 체질이 되시기 바란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